

시가지군

① 구 산포로 역 정차장

이 건물은 1908년에 건축되어 1952년까지 사용된 산포로 정차장의 정면 외관과 형태를 4/5로 축소하여 관리동으로 재현한 것이다. 외관에는 같은 시기의 미국에서 목조 건축에 사용되었던 스틱 스타일이라는 형식이 도입되었던 스틱 스타일이라는 형식이 도입되었다. 이 역사에는 '정차장'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었던 건물이다.

② 구 개척사 산포로 본청사 (방문객 센터)

1896(메이지12)년, 메이지 신정부는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벌판이었던 현재의 산포로를, 훗카이도의 정치의 중심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을 만들기 안에서, 관청이나 학교, 고용 외국인 교사의 관사 등에서는 서양풍의 건축 풍格將이 도입되었고, 산포로 중심부는 미국 동부의 도시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그 상징적인 건물로서 1873(메이지6)년 10월에는 개척사 산포로 본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1879년 소설된 개척사 청사의 재현이다.

③ 구 데미야 역장 관사

1880년, 훗카이도 최초의 철도로 홍로나이 철도가 부설되었다. 그 직원 관사로 세워진 것이 이 건물이다. 목조 빼빼와 내리닫이 창문 등 외부 디자인은 서양식 기법이 사용되었다. 데미야 속사 5호라고 불렸으며, 같은 형태의 건물이 6동 세워졌다.

④ 구 개척사(행정기관) 니시도리 요조야

이 건물은 개척사의 관사로 지어졌지만 완공 후 순차적으로 매각되었다. 미국 중서부의 건축 양식을 본떠 만들어 외관은 서양식이지만, 내부는 다미야가 깔려 있어 서양식과 일본식이 융합된 화양 절충 양식이다. 외관에 흰 패인트가 칠해져 있어서 '시로칸사'라고도 불렸으며, 2 주택으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이 4동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⑤ 구 후쿠시 집안의 주택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조선, 통역, 기상 관측, 측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훗카이도 개척에 공헌한 후쿠시 나리토(1838~1922)가 메이지시대 중기부터 1922년까지 거주한 건물이다.

메이지시대 전기의 서양식 건축과 메이지시대 후기의 일본식 주택을 접목한 특이한 건물이다.

⑥ 구 마쓰하시 집안의 주택

메이지시대에 걸쳐 조선, 통역, 기상 관측, 측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훗카이도 개척에 공헌한 후쿠시 나리토(1838~1922)가 메이지시대 중기부터 1922년까지 거주한 건물이다.

마쓰하시 집안은 메이지시대 초기에 아키타현에서 산포로로 이주하여 농업 및 토지회사 경영에 종사했다.

⑦ 구 아리시마 집안의 주택

일본 근대문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인 아리시마 다케오(1878~1923)가 1910년 5월부터 다음해 7월경까지 살았던 건물이다.

일반 주택에도 내리닫이 창문 등의 서양식 디자인이 도입되어 시작했을 무렵의 건물이다.

⑧ 구 우라카와 지청 청사

1897년 훗카이도청이 군구청 제도를 폐지하고 지청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라카와 지청이 설치되었다.

이 건물은 1919년에 혼지 우라카와 무라 및 도청의 용이로 건축되어 1932년 혼다카 지청으로 개칭. 1956년 우라카와초에 매각된 후에는 시카이마치 회관이나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⑨ 구 오타루 신문사

오타루 신문은 1894년에 창간되어 하코다테 마이니치신문, 훗카이 타임스와 함께 훗카이도 대표하는 신문 중의 하나였다.

이 건물은 1918년에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여관 겸 대기소를 신축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당시에는 여행객의 숙박이나 차차를 기다리는 장소 등으로 이용되어 이용객들로 붐볐다.

⑩ 구 개척사(행정기관) 공업국 청사

1873년에 설치된 개척사 공업국은 도로, 교량, 관청, 학교 등의 건설을 비롯하여 기재도구, 기계, 농기구, 차량 등의 제조 사업을 통해 혼카이도 개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건물은 메이지시대 초기의 서양식 사무소 건축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개척사 관련 청사 중에서 유일하다.

⑪ 구 훗카이 중학교

이 교사는 1898년부터 다음해에 걸쳐 건축된 본관 부분이다. 창립은 1905년으로, 전신은 산포로 농업학교 제3기생들이 중심이 되어 1885년에 설립된 사립 훛카이 영어학교이다.

외관의 디자인은 메이지 시대 중기부터 도입되었고, 산포로 중심부는 미국 동부의 도시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그 상징적인 건물로서 1873(메이지6)년 10월에는 개척사 산포로 본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1879년 소설된 개척사 청사의 재현이다.

⑫ 구 류운지 절

시노로 산 둑운지 절은 1886년 경, 주인의 노력으로 창건된 정토종의 절이다.

이 건물은 1893년에 신축 준공된 본당으로, 훛카이도 개척기의 능동 사원 건축을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면 입구의 찻배 공간은 다이소시대에 걸쳐 관청과 학교의 목조 건축물에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

⑬ 구 산포로 경찰서 미나미 이치조 순사 파출소

1895년, 산포로 소세이 다리 옆에 최초로 세워진 파출소는 목조 건축물로 산포로 소세이 바시 파출소라 불렸다. 동일한 목조 건물을 한번 개축되었다가 훗날 독지가의 기부로 새롭게 지어진 것이 이 건물이다.

외벽의 벽들은 마구연리와 길이연이 보이도록 교대로 쌓는 영국식 쌓기 공법을 이용하고 있다.

⑭ 구 시마우타 우체국

홋카이도에서 근대 우편 업무가 시작된 것은 1872년으로, 시마우타에는 1886년에 우체국이 설치되었다. 1893년에는 하타노 기요하루가 2대 국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맡았다. 이후 이 우체국은 하타노 집안이 계승해 왔다.

이 건물은 우편으로 사용되었고, 우편과 직원의 거주지는 다른 건물이었다.

⑮ 구 야마모토 이발소

이 건물은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처음부터 이발소로 사용되었다.

경사는 가파른 맞배지붕, 현관의 비단이 아치 등, 다이소시대의 서양식 건축물의 특징이 남아 있는 세련된 외관은 이발소 건물로 잘 어울리는 것으로 훛나기도 신공 참배길목의 이발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⑯ 구 와타나베 상점

1900년경에는 사공 채취로 불렸고, 1916년에 철도가 개통된 후에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한 나카토번스 시가지에 세워진 잡화점이다.

회반죽이 발라진 토광 조형은 석조 및 벽돌 양식과 마찬가지로 내한을 목적으로 한 구조이지만 훛카이도에서는 흔하지 않은 건물이다.

⑰ 구 우라카와 공회 교회당

1880년 고베에서 훛카이도 개척회사 '세키신사'가 설립되어 다음해인 1881년부터 니시사무라 및 오기후시무라로 천단이주하였다.

'세키신사'의 지도부의 대부분은 천주교 신도였기 때문에 1886년에 '우라카와 공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당은 1884년의 주일학교 교회당을 계승하는 제2대 때 예배·집회장소이다.

⑱ 구 구루마사 여관

히가시나야마 둔전병 마을에 둔전병으로 이주한 구루마사 사쿠마는 1898년에 퇴역한 후, 개통 직후의 소야 본선 나가야마 역앞으로 거주지를 옮겨 대기소를 개업하였다.

1918년에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여관 겸 대기소를 신축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당시에는 여행객의 숙박이나 차차를 기다리는 장소 등으로 이용되어 이용객들로 붐볐다.

⑲ 구 오타루 신문사

오타루 신문은 1894년에 창간되어 하코다테 마이니치신문, 훛카이 타임스와 함께 훛카이도 대표하는 신문 중의 하나였다.

이 건물은 1918년에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음해에

⑳ 구 산마스 가와모토 소바 가게

이 건물은 1885년 경에 이시카와현에서 오타루로 이주한 가와모토 도쿠마쓰(당시 18세)가 소바 가게에서 수타 기술을 배워 산마스라는 가게명으로 분점을 신축한 소바 가게이다.

외관은 서양식이지만 내부 장식은 대부분 일본식으로 서양식과 일본식이 융합된 화양 절충 양식의 건물이다. 홀에는 자연광을 사용했기 때문에 홀에는 2층에 있고 북쪽 지붕을 성글 스웨트라고 불렀던 경사지계 유리를 끌어넣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㉑ 구 다케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㉒ 구 곤도 의원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㉓ 구 류운지 절

시노로 산 둑운지 절은 1886년 경, 주인의 노력으로 창건된 정토종의 절이다.

이 건물은 1893년에 신축 준공된 본당으로, 훛카이도 개척기의 능동 사원 건축을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면 입구의 찻배 공간은 다이소시대에 걸쳐 관청과 학교의 목조 건축물에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

㉔ 구 곤도 염색점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㉕ 구 곤도 의원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㉖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㉗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㉘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㉙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㉚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㉛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㉜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㉝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

양조부는 9년 후인 1895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오타루 시가지에서도 가장 변화가 있었던 이 소바 가게는 식사나 연회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㉞ 구 훛카이 상점 양조부

이 건물은 가야 누마에 서석 탄 해역,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이 집안이 1886년경에 세운 건물이다.